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

김갑성 교수

여름휴가가 한창인 고속도로는 차들로 가득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멀지 않은 거리를 1시간 반 넘게 달려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에 도착했다. 방학인지라 학기 중 분주한 모습은 없었지만, 대학 캠퍼스는 언제나 신선한 활기가 느껴져 좋다.

태양물리 전공인 김갑성 교수와 마주 앉으니 자연스럽게 지난 8월 1일에 있었던 개기일식 이야기가 나왔다.

"고비사막에 있는 작은 도시에 갔습니다. 북경에서 돈황까지 비행기를 타고, 돈황에서 다시 버스로 6시간을 더 가야하는 오지였죠. 이번 개기일식 관측은 워크숍과 함께 열렸습니다. 전 세계 60여 명의 천문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국제 행사가 오래간만이었는지, 저희가 도착하니 시장까지 나와 환대해주더군요. 호텔에서 회의장으로 이동할 때는 경찰차가 호위를 해주기도 했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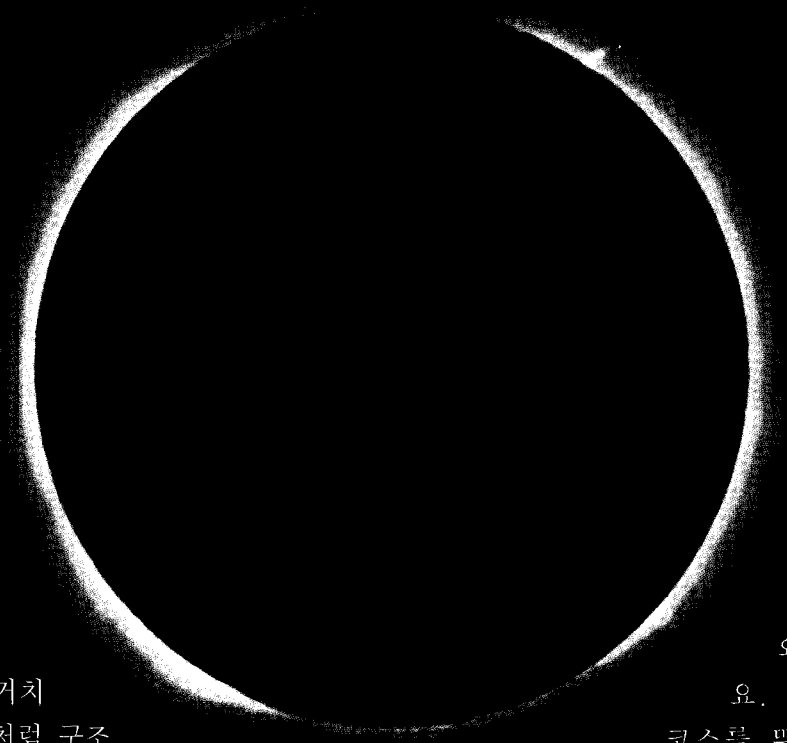
워크숍 다음날 개기일식 관측지로 적당한 곳을 찾아 이동했다. 날씨는 맑아서 좋은 관측이 되었다고 한다.

"이번 일식은 늦은 오후에 있었어요. 그래서 해가 지평선 가까이 있었죠. 해가 하늘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상당히 어두운데, 이번에는 좀 밝았습니다. 달이 해를 완전히 가렸을 때 어두운 정도를 보름달 뜬 밤과 비교하는데, 그런 어둠과는 또 다른 뭔가가 있습니다. 그건 살면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빛이에요. 마치 꿈속에서 보는 것 같다고나 할까요. 직접 보지 않고는 느끼기 힘든 경험입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죠. 개들은 짖고, 새들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다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겠죠."

김갑성 교수에게 태양 연구는 운명과도 같은 일이라고 한다.

"제 이름 자 중 '성'이 별 성(星)입니다. '갑성(鉀星)'이라는 게 별이 갑옷을 둘렀다는 것이 아니라 별 중에서 으뜸이라는 의미이죠. 하늘에 별이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으뜸인 별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태양입니다. 저는 태양물리 중에서도 복사 전달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태양에서 만들어진 빛이 관측자 눈에 도달하기까지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논리적으로 수치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천체력 정밀 계산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과에는 모두 8명의 교수가 있다. 그 중 김갑성 교수는 가장 오래 학과에 몸담았고, 가장 연장자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학과에 대한 애



정도, 책임감도 남다르다고 한다.

"1997년 IMF를 거치면서 대학들도 기업처럼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과가 사라질 위기도 여러 번 있었죠. 독자 생존을 위해서는 연구 사업을 유치해야 했고, 그것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다른 학과와 차별화를 위해 학과 특성화를 꾀했고, 관련 교수 영입도 추진했습니다. 50명이던 정원이 25명으로 줄었던 적도 있지만 이러한 노력으로 지금은 4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여러 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특정 연구 분야의 중심이 되는,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으로 키우고 싶다고 한다. 학자이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에게 학문 연구만큼 중요한 것이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 얘기한다.

"최근 몇 년은 이를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생들도 힘들지만 잘 호응해줘서 지금은 대학원도 자리를 잡았고, 졸업한 학생들도 여러 연구원에 진출해서 맡은 바 일을 훌륭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대견스럽고, 교수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90년대 말에는 건강이 악화되어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된다.

"건강이 안 좋아서 검사를 해보니 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위암인줄 알고 '이젠 죽었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위염이더군요. 그때 누가 한번 뛰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달려봤습니다. 장거리를 뛸 능력이 있을까 싶었는데, 막상 달려보니 의외로 잘 달리더군요. 첫 대회에는 5km 코스를 뛰었는데, 죽을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중독이 됩니다. 나중에는 10km, 그리고 21km 하프, 42.195km 풀코스까지 달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한 첫 번째 천문학자가 아닌가 싶어요. 달리기와 함께 자전거도 타는데, 오늘도 집인 잠실에서 학교까지 자전거로 왔어요."

지금까지 풀코스만 여섯 번을 뛰었다는 김 교수는, 2005년에는 평양에서도 달렸다고 한다. 그리고 주변에 그의 영향을 받아 달리기를 시작한 천문학자도 많단다.

"현재 한국천문연구원이 국립천문대였던 시절에 2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가보면 좀 낯설기는 해도, 친정 같은 곳이죠."

그리고 한국천문연구원이 앞으로도 대학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많은 교류가 이루어질 바란다는 말을 이었다.

▶ 개기일식 관측을 마치고.